2021. 12. 16.
재난예방과

일일 언론보도 현황

순 번	제 목	언론사	총계
1	여주소방서,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당부	기호일보 선경일보	3
2	여주소방서,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	경기미디어신문	1

경기도소방 여주소방서

기호일보

여주소방서,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당부

안기주 기자 | 승인 2021.12.15

여주소방서는 15일 공사장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.

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은 가연성 자재와 물건이 많아 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 또한,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아 소화. 피난 활동 등에 어려움이 많다.

실제로 올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신축건물 공사장 및 7월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공사현장 화재 예방을 위해 ▶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배치 ▶용접 방화포 설치 등 불티 비산 방지 ▶작업장 주변 소화기 등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▶안전모, 앞치마 및 내열성 장갑 등 보호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.

나성수 서장은 "공사 현장은 가연성 자재와 인화성 물질이 많아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"며 "대부분의 화재가 용접 등 작업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필히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"고 말했다.

여주=안기주 기자 ankiju@kihoilbo.co.kr

안기주 기자 ankiju@kihoilbo.co.kr

저작권자 © 기호일보 -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여주소방서,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당부

2021-12-15 13:14

여주소방서(서장 나성수)는 공사장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. 공사현장은 가연성 자재와 물건이 많아 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,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아 소화. 피난 활동 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. 실제로 올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신축건물 공사장 및 7월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. 이에 따라 공사현장 화재 예방을 위해 ▲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배치 ▲용접 방화포 설치 등 불티 비산 방지 ▲작업장 주변 소화기 등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▲안전모, 앞치마 및 내열성 장갑 등 보호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.

정기성 기자 skilbo@naver.com

경기미디어신문
mediagg.net

여주소방서,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

하현정 기자

등록 2021.12.15 14:45

여주소방서(서장 나성수)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.

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피난·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, 방화문 폐쇄·훼손으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, 피난·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, 피난·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.

신고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한 뒤 방문.우편.팩스.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.

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를 거쳐 지급된다.

김영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

기타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소방서 소방패트롤팀(031-887-7382)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.

[하현정 기자]

<저작권자(c) 경기미디어신문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

Copyright @2021 경기미디어신문. All rights reserved.